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초기 성인기의 적응

안 귀 여 루*

호연심리상담센터

본 연구의 목적은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초기 성인기의 심리적 적응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검증해 보고 더 나아가 이런 노출 경험이 실제 데이트 행동과는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피험자는 342명의 대학생이었다. 이 중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집단은 비 노출집단에 비해 더 많은 부정적 신체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더 우울하고 더 충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비 노출 집단에 비해 더 불안하거나 자존감이 낮지는 않았다. 부모의 배우자 폭력 노출 경험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노출 집단은 비 노출 집단에 비해 더 많은 부정적 신체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더 충동적이었으나 더 우울하거나 더 불안하거나 자존감이 낮지는 않았다. 한편 여자들의 경우에는 비 노출집단에 비해 노출 집단이 더 우울하고 더 많은 신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이 실제 데이트 장면에서 경험한 폭력 행동의 빈도를 비교한 분석한 결과, 노출 집단이 비 노출 집단에 비해 폭력 행동을 유의하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남자는 노출 집단이 비 노출 집단에 비해 더 많은 폭력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는 노출 집단과 비 노출 집단이 폭력 행동의 빈도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후 연구에 시사하는 바와 임상실제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배우자 폭력, 심리적 적응, 데이트 폭력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안귀여루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2 산경빌딩 4층 호연심리상담센터 /
FAX: 02-549-7819 / E-mail: roo@hoyun.co.kr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가정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아동에게 심리적 외상을 일으키고, 청소년기의 비행과 관련이 있으며, 성인기에 이르러서는 배우자 폭력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Holden, Geffner & Jouriles, 1998; 김광일, 1987). 따라서 가정 내의 폭력은 일과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까지 폭력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폭력적인 가정은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키고, 폭력과 폭력 방법을 학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폭력의 사용을 순제 해결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사회의 폭력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Gelles, 1976; Straus, 1978).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배우자 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일 뿐 아니라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엄명용, 2000). 그러나 가정 내의 폭력의 문제는 새롭게 생겨난 것은 아니며 다만 최근에 표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가정 폭력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이고 현재까지 일부 학자 및 연구 기관 등을 통해 가정 폭력 실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김재엽, 1998;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1992). 그러나 체계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다.

김재엽(1998)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가정에서 폭력의 발생률은 전체의 가정의 31.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 가정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함에 따라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97년과 98년도에 김재엽이 서울시 K구 중학생 42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16.0%의 학생들이 부모의 배우자 폭력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으며 1998년도에는 서울시 K구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6.5%의 학생들이 부모의 배우자 폭력을 목격했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서의 폭력은 손이나 발로 구타하거나 물건을 부수고 던지는 등 물리적 힘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김재엽,

2000).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들의 약 45%가 남편으로부터 경미한 폭력에서 심한 폭력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한 번 이상의 가정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1992). 80년대에 이루어진 한 사회 조사에서는 '결혼 후 남편에게 구타당한 일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708명의 여성 응답자의 42.2%에 해당하는 299명이 '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 남편에게 구타당한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14%에 해당하는 99명이 '있다'라고 대답하여 상당수의 가정에서 가정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심재근, 1984). 그러나 가정의 문제를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우리의 정서를 감안 할 때 사실 더 많은 수의 아이들이 가정 폭력에 노출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나 사람들을 흔히 '목격자', 혹은 '관찰자'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폭력에 '노출되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Holden, Geffner & Jouriles, 1998). 그 이유는 첫째로 어린이들이 실제로는 부모가 다른 한쪽의 배우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일을 간접적으로 듣거나 감지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신체적, 물리적 손상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혹은 폭력이 일어난 이후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그 여파를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노출'이라는 용어는 법정에서 실제로 부모의 폭력을 목격했다고 증언하는 아이들, 즉 '목격자', '관찰자'와의 혼동을 막을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Geffner & Pagelow, 1990). 또 한가지 용어와 관련한 문제로 '배우자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가정 폭력이라는 용어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배우자에 대한 폭력 행동을 연구의 초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동 학대나 노인 학대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가정 폭력이라는 말 대신에 '배우자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부부간의 폭력은 그 배우자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나, 임상가들, 정책 입안자들이 가정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Kempe와 그의 동료들(Kempe, Silverman, Steele, Drogemuller & Silver, 1962)이 신체적 학대를 당한 어린이를 발견하고 학계에 보고한지 거의 15년이 지난 1975년에야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연구가 최초로 이루어졌다. 그 해에 영국의 내과 의사(Levine, 1975)와 영국의 사회복지사(Moore, 1975)가 각각 독립적으로 가정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그들은 보고서를 통해 이런 아이들이 보이는 공격적 행동, 불안 장애, 불면증, 무단 결석 등의 문제들을 밝혀 내었다. 그러나 이런 보고서가 출간된 후에 세 번째 연구가 발표되기까지에도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이후로도 때때로 과학 잡지에 경험적 연구들이 간헐적으로 등장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가정 폭력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로나 정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시작 단계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모의 배우자 학대를 목격한 아이들은 그들이 경험한 지나친 자극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게 되고 외상 후 증상(post-traumatic symptom)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는다. 이런 아이들을 관찰한 임상가들의 일반적인 결론이다(Silvern & Kaersvang, 1989).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자신이 폭력 앞에서 무기력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울이나 죄책감, 손상된 자존감을 보인다(Jaffe, Wolfe, & Wilson, 1990; Pynoos & Eth, 1986; Silvern, Karyl, & Landis, 1995). 이런 임상적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게, 학대받은 여성을 위한 쉼터에 있는 아이들도 외상 후 증상들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andis, 1990).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의 강간이나 살인을 목격한 아이들에게서도 이런 증상들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Pynoos & Eth, 1985, 1986). 학대받은 여성의 아이들에 대한 몇 가지 경험적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증상들, 예를 들어 우울이나 신체화, 불안, 그리고 자책감 등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Alessi & Hearn, 1984; Carlson, 1984; Fantuzzo,

Lambert, Martino, Anderson & Sutton, 1991; Hughes, 1986, 1988; Jaffe et al., 1990; Jaffe, Wolfe, Wilson & Zak, 1986; Wolfe, Jaffe, Wilson & Zak, 1985). 또 가족 간 갈등, 역기능적 부부관계 및 부부 역동, 부모의 부적응 행동이 가정 폭력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가족 간 폭력은 학습을 통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적 성격 형성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 비행 행동 등의 부적응적 행동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Keller, Chaffin, Hollenberg & Fishcher, 1994). 1998년 김재엽의 연구에서도 배우자의 신체적 폭력이 청소년의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강하였다. 한편 주목할만한 결과는 자녀에 대한 체벌이나 학대는 청소년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중학생의 경우 부모의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나 부모와의 관계가 적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들이 보이는 정서적 문제들이나 학습이론에 의거해서, 아동기에 부모의 배우자 학대에 노출된 경험이 성인기의 정서적 적응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Davis & Carlson, 1987). 그러나 실제로 이런 연관성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은 거의 없다. 현재의 성장기 가정 폭력의 경험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결혼 관계에서 폭력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성장기 가정 폭력 노출 경험과 아내 학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런 연구에 따르면 아내를 학대하는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 남자들보다 그들의 부모에게서 폭력을 관찰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Hotaling & Sugaman, 1986; Rosenbaum & O'Leary, 1981; Straus, Gelles, & Steinmetz, 1980; Ulbrich & Huber, 1981).

그런데 가정 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를 감안했을 때, 성장기에 대한 회고적 연구에서 어린 시절의 가정 폭력 노출 경험과 성인기의 적응과의 관련성에 관

심을 갖지 않는 것은 매우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Louise Silvern과 그녀의 동료들은 성장기 부모의 배우자 폭력이 성인 초기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Silvern, Karyl, Walde, Hodges, Starek, Heidt & Min, 1995). 그 연구에 의하면 550명의 참가자 중 37%가 어떤 형태로든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그들이 보고한 부모의 배우자에 대한 폭력 행동은 배우자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밀거나 벽으로 때밀거나 때리는 것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은 가정 출신이고 이혼율이 일반 집단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도 사실 과소 평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의 발생빈도는 아직도 많은 연구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성인기의 적응과 어떤 관련을 갖는가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노출 집단과 비노출 집단의 우울감(BDI), 자존감(CSEI), 외상 후 증상체크리스트(TSC) 점수를 비교하였는데, 결과를 보면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성인기의 적응과 유의미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점수에서의 차이 뿐 아니라 부모의 배우자 학대에 노출되었던 사람들 중 약한 증상들이 아닌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집단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수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예를 들어 BDI점수에서 기준선 점수 이상인 사람들이 통제집단에 비해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장기 부모의 배우자 폭력을 경험 한 것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을 경험한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외상 증후들을 보고하였고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들의 경우에는 외상 후 증후만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배우자 폭력 노출 경험이 성별에 따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성인기의 심리적 적응 중에서 특히 내재화(internalizing)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외부로 향하는 외재화(externalizing)하는 행동 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았다.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내재화와 외재화로 나눌 수 있는데 내재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우울이나 불안, 죄책감 등 내부로 향하는 것들이고 외재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충동 통제의 어려움, 과잉행동, 폭력적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그 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외상을 경험한 것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남아의 경우에는 외재화하는 증상이 두드러지고 여아의 경우 내재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한다(Carlson, 1991). 즉 심리적 외상의 결과가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정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많은 경우에 비행 행동을 보인다는 그 간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부모의 배우자 폭력 노출 경험이 실제 생활에서의 외재화의 한 형태인 폭력 행동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내재화 증상과 외재화 증상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별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심리적인 외상을 경험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혼 관계에서의 폭력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가정 폭력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이나 적응상의 문제들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가정 폭력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가정 폭력의 경험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을 감안 할 때 내재화 증상뿐 아니라 외재화하는 증상들에 대해서도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초기의 대학생들의 자신의 부모의 배우자 학대에 대한 회고적(retrospective) 보고와 그들의 부정적 신체증상, 충동성, 우울감, 불안, 자존감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거기에 더해서 데이트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이 아동기의 부모의 배우자 폭력 행동 노출 경험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를 검증해 봄으로써 배우자 폭력의 노출 경험과 외재화(externalizing)하는 증상의 관련성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1) 부모의 배우자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하는 대학생의 빈도가 어느 정도인가?
- (2)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에 대한 보고가 초기 성인기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서 부정적 신체 증상들, 우울감, 충동성, 불안 및 자존감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 (3) 부모의 배우자 폭력 노출에 대한 경험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4) 부모의 배우자 폭력 노출 경험이 실제적인 데이트 행동에서의 폭력과 어떤 관련 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관련성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방 법

피험자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울 소재 1개 대학과 경기 소재 1개 대학, 그리고 중부권 소재 1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 심리학과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었다. 37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나 반응이 타당하지 않은 사람들과 질문지를 완성하지 않은 29명을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사람은 전체 342명이었고 이 중 남자는 206명(60.2%)이었고, 여자는 136명(39.8%)이었다.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1.04세였다.

절 차

본 연구는 사전에 잘 준비된 설문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피험자들이 가진 가정 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서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이 대학생의 정서적 적응과 데이트 행동에 관한 것이라고만 설명하였고 성장기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대한 질문은 질문지의 맨 뒤쪽에 배치하였다. 연구 설문지는 학기 중에 수업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었고 각자

설문지를 완성한 후 함께 나누어준 봉투에 봉한 상태로 반납하도록 조치하였다. 연구의 필요성을 실사자가 잘 설명하였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측정치들

인구학적 정보

피험자의 연령, 학과, 학년, 가족의 월수입, 성별, 등이 조사되었다.

부정적 신체 증상

한덕용(1992) 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 1999).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124$ 였다.

문항의 내용은 주로 부정적인 신체 증상들로, '머리가 자주 아프다', '잠이 깊이 들지 않고 자주 깬다', '식은 땀이 난다', '가슴이 마구 뛰다', '항상 피곤하다', '어지럽고 구토가 나려고 한다', '가슴이 빠근하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 울

SDS(Self-Rating Depression Scale)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우울한 증상들을 자기가 평가하는 척도이다(박중훈, 1994). 이 척도는 Zung(1965)이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표준화한 것으로 의기소침, 주의력 및 집중력, 사고력의 저하, 운동 정신 기능의 장애, 식욕 및 성욕 감소, 우울, 심하게는 허무망상 및 주관적 자살 의도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척도는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 4점 척도(1: 아니다, 2: 때로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항상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역코딩을 하지 않고 총점을 계산한다. 이 척도들 간의 상호 상관은 $r = .78$ 이다(김정희, 1987).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박병탁, 이종범, 이종훈, 정성덕, 1990; 이종범, 이종훈, 1985)

충동성

반 사회적 행동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알려진 충동성의 정도를 재기 위해 Barratt Impulsiveness Scale(BIS, Barratt, 1959)의 11판을 이현수(1992)가 번안한 것으로,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가된다. 이 검사는 세 개의 하위 척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계획 충동(NP), 운동 충동성(M) 및 인지 충동성(C)이 있다. 각 하위척도는 12 문항, 10 문항 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

피험자의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 (1970)의 STAI를 김정택(197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40개의 문항 중 특성 불안을 재는 20개의 문항만을 실시하였다.

자아 존중감

피험자의 자아 존중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노은영이 번안한 Rosenberg(1965)의 '자아 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 존중감 척도는 자아 존중감과 관련된 총 10개의 문항에 대해서 그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노은영(1997)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5였다

데이트 중의 폭력 행동 경험

데이트 시의 폭력 행동은 CTS(Conflict tactic scale)를 참고로 하고 사전 연구 시에 대학생들이 데이트 상황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 행동을 조사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문항은 '물건을 바닥이나 벽에 던진다'라는 가벼운 행동에서 시작하여, '상대방의 목을 조른다'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의 문항까지 모두 8개로 구성되었다.

부모의 배우자 학대에 대한 노출 경험

부모의 배우자에 대한 폭력 행동에 관한 경험들을

물어보았다. 먼저 단순히 응답자들의 성장기에 가정 내에서 부모들 간에 배우자 폭력이 있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성장기(7세-17세)에 당신의 가정에서 부모의 배우자 폭력이 있었습니까?'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경우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자신의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CTS의 갈등 해결 방법 중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문항은 물건 던지기, 손으로 때리기, 물건으로 치기, 발로 차기, 때밀기, 흠뻑 패주기, 목조르기, 흉기 사용하기 등이었다. 연구의 실제적인 분석에서는 첫 문항에 대해 '있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을 노출 집단에 분류하였고 '없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비 노출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전에 가정 폭력에 대한 회고적 연구에서 가정 폭력 노출 경험을 유형이나 빈도로 나누는 것이 경험의 유무로 나누는 것보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Silvern et al., 1995).

결 과

인구학적 정보들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전체 342명이었고 이 중 남자는 206(60.2%)명이었고, 여자는 136명(39.8%)이었다. 피험자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11.1%이고 100-150이 14.9%이며 150-200이 20.2%였고 200-250이 19.9%였고 250만원 이상이 25.1%였다. 자신의 생활 수준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대해서 생활 수준이 '하'라고 대답한 사람은 12%였고 '중하'라고 답변한 사람이 21.3%였다. 나머지 '중', '중상', '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74%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수준을 중산층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8-19세가 38.6%이고 20-23세가 41.5%였으며 19.9%가 나머지 범주에 속하였다.

표 1. 가정폭력 경험 유무

가정폭력 노출 경험	성 별		Total
	남	여	
유(%)	65(19.0%)	37(10.8%)	102(29.8%)
무(%)	141(41.2%)	99(28.9%)	240(70.2%)
전 체(%)	206(60.2%)	136(39.8%)	342(100%)

부모의 배우자 학대의 노출 경험

전체 응답자 342명 중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되었다고 보고한 사람은 102명으로 전체의 29.8%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전체 206명중 65(31.6%)명이 가정 폭력에 노출된 적이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전체 136명중 37(27%)명이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되었다고 보고하여 서로 비슷한 비율을 보여 주었다(표 1 참조).

여기에 더해서 부모들의 폭력적인 행동의 유형점수를 구해보았다. 즉 성장기에 자신의 가정 내에서 부모의 배우자 폭력행동이 발생했다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폭력행동이 있었나에 대해 대답하도록 한 결과, 8개의 폭력 행동 유형에 대해 평균적으로 2.06개의 반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행동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가장 흔한 것이 물건 던지기(49.0%), 손으로 때리기(26.8%)등이었고, 드물게 나

타난 것은 목조르기(1.3%), 흉기 사용하기(5.4%)였다.

부모의 배우자 폭력 노출 경험과 여러 가지 심리적 적응과의 관련성

성장기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성인기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련성을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집단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우울하고, 더 많은 신체 증상을 보이며 더 충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그러나 예상과 달리 두 집단 간에 불안과 자존감 점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우울하고 더 많은 부정적인 신체 증상을 경험하며 더 충동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더 불안하거나 자존감이 낮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부모의 배우자 폭력 노출 경험에 따른 성인기 적응

	유	무	F	P
	평균(SD)	평균(SD)		
우울감	42.14(7.53)	40.02(6.01)	7.660	.006*
신체화	38.71(9.08)	33.53(7.08)	32.046	.000**
충동성	53.78(8.11)	50.77(8.03)	10.029	.002*
불안	48.31(9.10)	46.93(8.32)	1.861	.173
자존감	30.81(4.60)	29.97(4.67)	2.364	.125

*p < .01, ** p < .001

성별에 따른 부모의 배우자 폭력 노출 경험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련성

부모의 배우자 폭력 행동에 노출된 경험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을 나누어서 심리적 적응을 분석해보았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배우자 폭력 노출 경험이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남자들의 경우는 노출 경험이 부정적 신체 증상들 및 충동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자들의 경우에는 노출 경험이 부정적 신체 증상들과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들의 경우에는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많은 부정적 신체적 증상을 보이며 충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들의 경우에는 노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우울하고 부정적 신체 증상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집단 모두에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다양한 부정적 신체적 증상이었다. 따라서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

에 노출된 경험은 남녀에게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집단을 분석했을 때 우울감, 신체화, 충동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던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데이트 중 폭력 행동

데이트 중에 경험한 폭력 행동을 알아보았다. 전체 342명의 응답자 중에서 8개의 폭력 행동에 대한 문항에 대해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149명(56.4%)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 가지라도 폭력 행동을 하였다고 대답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 폭력 행동 중 빈도가 높은 반응은 '물건을 바닥이나 벽에 던진다'(21.3%), '상대방을 밀친다'(11.7%), '뺨을 때린다'(9.4%) 등이었다.

한편 매우 심각한 폭력이라고 생각되는 '상대방의 목을 조른다'라는 문항에도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서 '흉기를 가지고 위협한다'는 문항에도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었다. 따라서 데이트 중인 남녀간에도 상당한

표 3. 성별에 따른 성인기 적응

		노출 집단	비 노출 집단	F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 편차)		
우울감	남	40.89(7.68)	39.50(6.33)	1.865	.174
	여	44.35(6.82)	40.76(5.46)	10.127	.002*
신체화	남	37.75(8.76)	33.43(7.10)	14.151	.000**
	여	40.38(9.50)	33.68(7.09)	19.824	.000**
충동성	남	53.83(8.23)	50.71(7.62)	7.059	.009*
	여	53.70(7.99)	50.85(8.61)	3.075	.082
불안	남	47.06(9.00)	46.02(8.36)	.647	.422
	여	50.51(8.98)	48.22(8.13)	2.018	.158
자존감	남	31.15(4.45)	30.37(4.76)	2.564	.111
	여	30.22(4.85)	29.90(4.43)	.131	.718

*p < .01, **

표 4. 데이트 중의 폭력행동 경험 (괄호 안은 %)

	데이트 중의 폭력행동					
	한적 있다			한적 없다		
	전체	남	여	남	여	
1. 물건을 방바닥이나 벽에 던진다	73(21.3)	44(21.4)	29(21.3)	269(78.7)	162(78.6)	107(78.7)
3.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진다	26(7.6)	11(5.3)	15(11.0)	316(92.4)	195(94.7)	121(89.0)
3. 상대방을 밀친다	40(11.7)	21(10.2)	19(14.0)	302(88.3)	185(89.8)	117(86.0)
4. 뺨을 때린다	32(9.4)	19(9.2)	13(9.6)	310(90.6)	187(90.8)	123(90.4)
5. 상대방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20(5.8)	15(7.3)	5(3.7)	322(94.2)	191(92.7)	131(96.3)
6. 술을 먹고 상대방을 때린다	21(6.1)	15(7.3)	6(4.4)	321(93.9)	191(92.7)	130(95.6)
7. 상대의 목을 조른다	12(3.5)	7(3.4)	5(3.7)	330(96.5)	199(96.0)	131(96.3.5)
8. 흉기를 가지고 위협한다	8(2.3)	6(2.9)	2(1.5)	334(97.7)	200(97.1)	134(98.5)
Total (한가지 행동이라도 했다고 답변한 사람의 수)	193(43.6)	88(42.7)	61(44.9)	149(56.4)	118(57.3)	75(55.1)

정도의 폭력 행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한편 여자들의 경우에도 데이트 중 폭력 행동을 한 비율이 남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상대방을 향해서 물건을 던진다는 항목에서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반응 빈도를 보였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여자들에 비해 상대방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는 문항과 술을 먹고 상대방을 때린다는 문항에 대한 반응 비율이 높았다. 한편 한 가지 행동이라도 했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여자가 더 높게 나온 것은 남자의 경우 여러 문항에 반복 반응한 사람이 많은 반면, 여자들은 한 사람이 반응한 문항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부모의 배우자 폭력 노출 경험에 따른 데이트 중의 폭력행동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실제적인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 행동과 어떤 관련을 갖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는 폭력 행동의 빈도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28.24$, $p<.001$).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빈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폭력 행동은 '술을 먹고 상대방을 때린다'(p<.001), '뺨을 때린다'(p<.001)였다. 이외에도 .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문항은 '물건을 방바닥이나 벽에 던진다', '상대방을 밀친다', '상대방을 발로 차거나 때린다'였다. 또한 .05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진다', '흉기를 가지고 위협한다'였다. 따라서 전체 8개 중 6개의 문항에서 .05의 유의미도 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문항은 '상대의 목을 조른다'는 1개의 문항 뿐이었다.

성별에 따른 부모의 배우자 폭력 노출 경험과 데이트 폭력 행동

남자들의 경우, 성장기 부모의 배우자 폭력 노출 경

표 5. 부모의 배우자 폭력 노출 경험에 따른 데이트 중의 폭력행동

	노출 집단	비노출 집단	X ²	유의도
1. 물건을 방바닥이나 벽에 던진다	31(102)	42(198)	7.086	.008**
2.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진다	13(102)	13(227)	5.473	.019*
3. 상대방을 밀친다	20(102)	20(220)	8.810	.003**
4. 뺨을 때린다	23(102)	9(231)	29.826	.000***
5. 상대방을 발로 차거나 때린다	12(102)	8(232)	9.242	.002**
6. 술을 먹고 상대방을 때린다	16(102)	5(235)	22.982	.000***
7. 상대의 목을 조른다	5(102)	7(233)	.833	.361
8. 흉기를 가지고 위협한다	5(102)	3(237)	4.179	.041*
Total	68(102)	86(240)	48.386	.000

*p < .05 **p < .01 *** p < .001

험이 현재의 데이트 행동에 어떤 차이를 가져왔는가를 살펴 본 결과, 두 집단 간에 폭력 행동의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3.978, p<.001$). 집단 간에 차이가 나는 각각의 문항을 살펴보면 노출 집단이 '뺨을 때린다', '술을 먹고 상대방을 때린다'는 문항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 또한 '상

대방을 밀친다', '상대방을 발로 차거나 때린다', '흉기를 가지고 위협한다'는 문항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1$). 또한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진다'는 문항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p<.05$). 한편 '물건을 방바닥이나 벽에 던진다', '상대방의 목을 조른다'는 문항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 6 참조).

표 6. 남자의 데이트 중 폭력행동

	노출집단	비노출 집단	X ²	p
1. 물건을 방바닥이나 벽에 던진다	19(46)	25(116)	3.503	.061
2.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진다	7(58)	4(137)	5.538	.019*
3. 상대방을 밀친다	13(52)	8(133)	9.974	.002**
4. 뺨을 때린다	17(48)	2(139)	32.512	.000***
5. 상대방을 발로 차거나 때린다	10(55)	5(136)	9.236	.002**
6. 술을 먹고 상대방을 때린다	12(53)	3(138)	17.581	.000***
7. 상대의 목을 조른다	4(61)	3(138)	.2197	.138
8. 흉기를 가지고 위협한다	5(60)	1(140)	7.672	.006**
Total	47(65)	41(141)	47.498	.000

*p < .05 **p < .01 *** p < .001

여자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배우자 폭력 행동에 노출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폭력 행동의 빈도를 비교해 보면 남자들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자들의 경우 두 집단 간에 전체적인 폭력 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chi^2=1.740, p=.187$, 표 생략).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여자들에게는 실제적인 데이트 상에서의 폭력행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술을 먹고 상대방을 때린다 라는 문항만이 .05수준에서 의미 있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대한 노출 경험이 현재의 폭력 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부모의 배우자 폭력 행동을 경험한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많은 폭력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자들의 경우는 노출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폭력 행동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 시 폭력 행동을 보인 여성의 수가 적은데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심리적 적응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판별 분석

앞에서 가정 폭력의 노출 경험이 남자와 여자의 심

리적 적응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 폭력의 경험에 따라 데이트 시 폭력 행동의 경험 정도가 다르다는 것도 나타났다. 그런데 심리적 적응에서 남자들의 경우 신체적 증상과 충동성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들은 신체 증상과 우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심리적 적응의 요인 중 어떤 것이 데이트시의 폭력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판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stepwise 판별 분석의 결과가 표 7, 8, 9에 제시되었다. 판별 분석을 통해 1개의 함수가 도출되었다. 추출된 함수로부터 나온 캐노니칼 상관 계수는 $.294(\chi^2=30.585, p<.001)$ 이었다. 데이트 시 폭력행동을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을 유의하게 구분해 주는 첫 번째 변인은 부정적 신체 증상이었다 (Wilks' Lamda = .929, F=25.884, $p<.001$). 또 다른 변인은 충동성이었다(Wilks' Lamda = .914, F=16.003, $p<.001$). 두 개의 변인을 이용했을 때 58.4%의 폭력 행동 집단과 66.3%의 비폭력 집단이 정확히 구분될 수 있었고, 이 두 변인은 두 집단을 62.9%의 정확도로 구분하였다. 판별의 정확도가 크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데이트 시의 폭력 행동과 관련이 있는 심리적 적응의 요인은 부정적 신체 증상들과 충동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정준 판별 함수의 유의도

function	Eigenvalue	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	Wilks' Lamda	X ²	df
1	.094	.294	.914	30.585	2

표 8. 데이트 폭력 경험 집단과 비 경험 집단의 판별 분석

변 인	Wilks' Lamda	F	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
부정적 신체 증상	.929	25.884*	.87
충 동 성	.914	16.003*	.44

* p < .001

표 9. 데이트 폭력 경험 유무에 따른 정준 판별 함수에 의한 분류율

원 집단	예측된 집단		정확 분류율
	경험 집단	비경험 집단	
경험 집단 (n=149)	87(58.4%)	62(41.6%)	58.4%
비경험 집단 (n=193)	65(33.7%)	128(66.3%)	66.3%
			전체 62.9%

논 의

가정 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은폐되어 왔던 문제로서, 다음 세대로 그 영향력이 이전된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가정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아동에게 심리적 외상을 일으키며, 청소년기의 비행과 관련이 있으며, 성인기에 이르러서는 배우자 폭력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나 학습이론에 의거해서, 아동기에 부모의 배우자 학대에 노출되는 것이 성인기의 정서적 적응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장기 가정 폭력 노출 경험이 성인기의 적응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다. 또한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내재화 증상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대부분이고 외재화하는 증상에 대해 관심을 가진 연구들을 별로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장기 부모들 사이의 폭력에 노출된 많은 수의 어린이들과 이들의 성인기 적응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응답자 342명 중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되었다고 보고한 사람은 102명으로 전체의 29.8%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전체 206명 중 65(31.6%)명이 가정 폭력에 노출된 적이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전체 136명 중 37(27%)명이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되었다고 보고하여 서로 비슷한 비율을 보여 주었다. 이런 비율은 이전의 가정 폭력 발생 빈도에 대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놀라

운 결과인데, 표본의 특성상 배우자 학대의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은 가정 출신이고 배우자 학대는 저 소득 가정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이기 때문이다(Gelles & Cornell, 1990; Ulbrich & Huber, 1981).

한편,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성인기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집단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감이 높고 더 많은 신체증상을 보이며 더 충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두 집단 간에 불안과 자존감 점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불안이나 자존감이 성장기 부모의 배우자 폭력의 노출 경험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용된 질문지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불안이나 자존감에 대한 질문지는 매우 일반적인 특성 불안과 자존감을 측정하는 것이었는데, 만일 폭력이나 갈등 상황에 대한 불안이나 대인 관계에서의 자존감을 재는 검사 도구를 사용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자존감의 경우, 사용된 표집의 특성에 의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높는데, 폭력 가정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대학생이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가정 폭력 노출 집단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가정 폭력의 노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적응의 정도를 갖게 되는 원인이 되는 변인들을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배우자 폭력 행동에 노출된 경험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을 나누어서 심리적 적응을 분석해보았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배우자 폭력 노출 경험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들의 경우는 노출 경험이 부정적 신체 증상과 충동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들의 경우에는 우울감과 부정적 신체 증상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들의 경우에는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많은 부정적 신체적 증상을 보이며 더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노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우울하고 부정적 신체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에게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은 다양한 부정적 신체적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적 경험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이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남자들의 경우는 심리적 충격의 영향이 신체화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외부로 향하는 형태(충동성, 폭력 행동)로 나타나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신체화와 더불어 내부로 향하는 형태(우울)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자의 분노감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므로 외부로 향하지만 여성들의 분노는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내부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되었던 아동들에 대한 연구에서, 여아들은 내재화 증상에 취약하고 남아들은 외재화 증상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Carlson, 1990; Jaffe et al., 1990; Jaffe et al., 1986). 또한 이런 패턴은 아동기의 정신 병리에서 나타나는 성차와도 일치하는데(Achenbach, 1982), 가정 폭력에 노출된 경험의 영향이 성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가정 폭력 노출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도 영향력의 성간의 차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편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 행동에 노출된 경험이 실제적인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 행동과 어떤 관련을 갖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데이트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폭력 행동을 알아보았다. 전체 342명의 응답자 중에서 8개의 폭력 행동에 대한 문항에 대해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149명(56.4%)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 가지라도 폭력 행동을 해 본적이 있다고 대답하여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 즉 데이트 중에 전체의 43.6%가 어떤 형태로든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실제적인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 행동과 어떤 관련을 갖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는 폭력 행동의 빈도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남녀를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남자들의 경우 성장기 부모의 배우자 폭력 노출 경험이 현재의 데이트 행동에 어떤 차이를 가져왔는가를 살펴 본 결과, 노출 집단이 비 노출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많은 폭력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들의 경우, 부모의 배우자 폭력 행동에 노출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폭력 행동의 빈도를 비교해 보면 남들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자들의 경우, 전체 문항에 대한 반응을 빈도 분석한 결과는 두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문항별로 분석했을 때도 차이가 나는 문항은 '술을 먹고 상대방을 때린다'는 문항 밖에 없었다. 그러나 폭력 행동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전체 인원이 적은 것이 집단간의 변별을 불가능하게 했을 수도 있다.

폭력 행동에서의 성 간의 차이는 심리적 적응에서 충동성 변인에서 성차가 나타나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충동적인 사람이 분노나 일시적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행동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남자는 충동적인 경향이 있고 이들이 성인기에 데이트 상황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바람직성에 기인하였을 것이다. 한편으로 여성들의 경우 데이트 시 폭력 행동을 보인 사람들의 비율은 남자들과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남녀간의 가정 폭력 노출 경험의 빈도와 영향력의 차이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 피험자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 집단이 초기 성인기에 속한 사람들을 대표하기 어렵고 대학생 특유의 특성들이 연구의 결과를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제한점은 본 연구가 회고적인 보고(retrospective report)를 사용한 점이다. 실제적인 인과관계를 밝히려면 종단적 연구를 사용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회고적 보고를 사용한 것이 가정 폭력의 발생 빈도나 형태에 대한 기억에 왜곡을 가져왔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폭력을 직접 당한 배우자의 자기보고에 기초하는 경우, 학대받은 여성은 가해자에 대한 금기적 정보를 드러내는 것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Gelles & Cornell, 1990). 그리고 특히 가해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보고하는 것을 더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정 폭력의 노출 경험의 빈도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정보 제공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 폭력을 경험한 자녀에 의한 회고적 보고는 오히려 더 정확한 가정 폭력의 발생 빈도를 제공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회고적 보고는 사회 정책과 가정 폭력에 대한 어린이의 노출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배우자 폭력 행동에 대해 각 행동별로 자세히 조사하지 못한 것이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 연구에서 가정 폭력에 대한 노출 경험을 폭력 행동의 빈도나 정도에 의해 나누는 것은 성장기 폭력 경험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ilver et al., 1995). 성장기 즉, 7세에서 17세 사이에 어떤 종류의 몇 번의 가정 폭력을 경험했는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가정 폭력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빈도보다는 경험에 노출된 사람이 그 경험을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 폭력에 대한 노출 집단을 분류할 때 본인의 지각을 바탕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노출의 심도나 유형이 성인기의 적용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을 있다면 본 연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살피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성인기의 적용이나 행동에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치며 그 영향이 성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성인기의 적용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그동안의 연구에서 학대받은 여성의 아이들이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외상을 입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며 그 결과를 확장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입에서 직접적 폭력을 당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입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개입의 전략이나 목표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본 연구가 시사해 준다. 그리고 추후 연구에서는 같은 가정 폭력을 경험하고도 적용을 잘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 줄 수 있는 특징이나 환경적 요인같은 것들을 밝혀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 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1999). 심리 척도 핸드북. 학지사.
- 김재엽(1998). 가정 폭력 실태와 사회 계층 변인과의 관계 연구. 한국 사회 복지학, 35호.
- 김재엽(2000). 한국인의 가정 폭력의 실태와 현상. 가정 폭력 대응 전략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 김정택(1978). 특성 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

- 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 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광일(1987). 가정 폭력- 그 실상과 대책. 탐구당.
- 노은여(1997). 결혼 생활 만족도와 자아 존중감의 변동이 기혼 남녀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병탁, 이종범, 이중훈, 정성덕(1990). 양로원 재원 노인의 우울에 관한 연구. 영남 의대 학술지. 7, 79-87.
- 박중훈(1994). 급성 및 만성 정신 분열증 환자의 우울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심재근(1984). 가정내의 폭력과 공격성.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엄명용(2000). 가정 폭력 추이 : IMF 전과 후의 변화. 가정 폭력 대응 전략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 이현수(1992). 충동성 검사. 서울 : 한국 가이던스.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1992). 가정 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 남편의 아내 폭력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 형사 정책 연구.
- Achenbach, T. M.(1982).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Wiley, New York.
- Alessi, J. J. and Hearn, K. (1984). Group treatment of children in shelters for battered women. In Roberts, A. R. (ed.), *Battered Women and Their Families*, Springer, New York, pp. 49-61.
- Carlson, B. (1991). Outcomes of physical abuse and observation of marital violence among adolescents in placem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 526-534.
- Davis, L. V., and Carlson, B. (1987). Observation of spouse abuse: What happens to the childr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 278-291.
- Fantuzzo, J. W., DePaola, L. M., Lambert, L., Martino, T., anderson, G., and Sutton, S. (1991). Effects of interparental violence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competencie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258-265.
- Geffner, R.,and Pagelow, M.D.(1990). Meditation and child custody issues in abusive relationship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8, 151-159.
- Gelles, R.J.(1976): Abused wives: Who do they sla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8, 659-668.
- Gelles, R. J. and Cornell, C. P. (1990).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Sage, Newbury Park.
- Holden, G.W., Geffner, R., and Jouriles, E. N(1998). *Children exposed to marital violenc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Hotaling, G. T. and Sugarman, D. B. (1986). An analysis of risk markers in husband to wife violence: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Violence Victimology*. 1, 101-124.
- Hughes, H. M. (1986). Research with children in shelters: Implications for clinical services. *Children Today*, 21-25. (Cited in Jaffe *et al.*, 1990).
- Jaffe, P. G., Wolfe, D. A., and Wilson, S. K. (1990). *Children of Battered Women*. Sage, Newbury Park.
- Jaffe, P., Wolfe, D., Wilson, S. and Zak, L. (1986). Similarities in behavioral and social maladjustment among child victims and witness to family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6, 142-146.
- Keller K. Chaffin M., Hollenberg J., Fischer E.(1994): Alcohol and drug disorders among physiologically abusive and neglectful parents in a community-based sampl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4, 1586-1590.
- Kempe, R., Silverman, F. N., Steele, B.F., Droegemueller, W., and Silver, H.K.(1962). The battered child syndrome.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81, 107-112.
- Landis, T. (1990). Children in shelters: An exploration of dissociative processes and traumatization in some

-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lorado, 1989).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50(12), 5884.
- Levine, M.B.(1975). Interpersonal violence and its effects on the children: A study of 50 families in general practice. *Medical Science Law*, 15, 172-176.
- Moore, J.G.(1975). Yo Yo children: A study of 23 violent matrimonial cases. *Child welfare* 8, 557-566.
- Pynoos, R. S., and Eth, S. (1985). Children traumatized by witnessing acts of personal violence: Homicide, rape, or suicide behavior. In Eth, S. and Pynoos, R. S. (ed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Children*. American Psychiatric Press, Washington, DC, pp. 17-44.
- Pynoos, R. S., and Eth, S. (1986). Witness to violence: The child interview. *Journal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5, 306-319.
- Rosenbaum, A., and O'Leary, K. D. (1981). Children: The unintended victims of marital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 692-699.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ilvern, L., and Kaersvang, L. (1989). The traumatized children of violent marriages. *Child Welfare*. 68, 421-436.
- Silvern, L. Karyl, J., and Landis, T. (1995) Individual psychotherapy for the traumatized children of abused women.
- Silvern, L., Karyl, J., Waelde, L., Hodges, W. F., Starek, J. , Heidt, E. and Min, K.(1995) Retrospective Reports of Parental Partner Abuse: Relationship to Depression, Trauma Symptoms and Self-Estee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No.2, 177-202.
- Spielberger, C.D., Gorsuch, R.L., and Lushene, R.E.(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Straus, M.A.(1978) Wife beating: How common and why? *Victimology*, 2, 443-458.
- Straus, M. A., Gelles, R. J., and Steinmetz, S. K. (1980).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Anchor Books/Doubleday, Garden City, NY.
- Ulbrich, P., and Huber, J. (1981). Observing parental violence: Distribution and effec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3-631.
- Wolfe, D. A., Jaffe, P., Wilson, S. K., and Zak, L. (1985). Children of battered women: The relation of child behavior to family violence and maternal str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657-665.
- Zung, W. W. K.(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3, 508-515.

원고접수일 : 2001. 7. 5.
수정원고접수일 : 2001. 9. 13.
게재결정일 : 2001. 10. 29.

Childhood Exposure to Parental Partner Abuse and Early Adulthood Adaptation

Ahn, Gwi-Yeo-Roo

Hoyun Counseling Center

This study tested whether childhood exposure to parental partner abuse were associated with early adult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date violence.

Participants were 342 college students. Childhood exposure to parental partner abuse was related to depression, negative somatic symptoms, impulsivity. Among men, childhood exposure was associated negative somatic symptoms and impulsivity. and Among women, childhood exposure was associated negative somatic symptoms and depression. and Childhood exposure to partner abuse was related to date violence. But its effect is dependent on participant's sex. Men who have exposed to parental partner abuse had experienced more date violence. But this is not true for women. The variables which discriminated significantly between who have experienced date violence and who have not were negative somatic symptoms and impulsivity were identified through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The discussion addressed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future research and for clinical practice.

Keyword : parental partner abuse, adaptation, date violence